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겨울철 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을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문천지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원양수산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한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을 매일 보고받고있는데 짧은 기간에 6만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어로공들을 만나고 무해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황금해—014》 호고기배에 오르시여 만신하고 귀환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로공들과 배전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담화하시면서 어항이 조성된데 맞게 드릴과 견착어업을 배합하여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를 과감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어장탐색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편속적인 어로전을 벌려향차당, 기망당, 연유 1t당 어획량을 늘일데 대한 문제, 당에서 마련해준 호고기배들의 기술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원성능유지를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그들이 잔걱정을 하지 않고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량과 기초식품, 피복,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후방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국의 제일 앞장에서 실적을 울리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풍》 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라고, 이 수산사업소는 나라의 수산부문에 다 주저앉았을 때 당에서 수산전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씨를 지펴준 사업소이라고, 바로 여기에서 《단풍》 호고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부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새로운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게 되었으며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에 장비한 《단풍》 호고기배들의 성과와 기술상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물고기가공장과 팽동저장고, 종합생산지휘실을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방침관철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호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루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27일수산사업소의 혁명사적교양실, 팽동저장고, 통합조종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정형과 사업소의 생산과 경영활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집중어로전투의 환경에 맞게 어로공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필수5대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을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팽동저장고에 꼭 들어찬 물고기블록들을 보시며 보물산이라고, 금피갈다고, 집중어로전투기간 며칠사이에 벌써 이렇게 저장고에 거의 채워놓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

시면서 지금처럼 나가면 잡은 물고기들을 저장고에 들여놓지 못할것이라고, 앞으로 급동능력을 년차별로 2~3배 더 조성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팽동블록의 앞뒤면이 얼음으로 덮여야 물고기가 마르는것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팽동블록을 만들 때 팽동사람에 물고기들을 팔고루 펴고 물량조절을 잘하여 물고기블록이 얼음으로 도포한것처럼 매끈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팽동한 물고기블록을 비닐주머니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대를 만들어주며 자동포장기를 제작설치하여 손로동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27일수산사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연을 정말 잘했다고, 톱툰하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구수한 공연이라고, 당정책으로 일관되고 사상성과 예술성도 잘 결합된 바다사람들의 노

래를 들으니 머리가 다 맑아진다고 하시며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당의 수산혁명방침관철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해주시고 리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력사에 선군걸로 기록된 뜻깊은 날에 다녀가신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8월25일 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4차례나 현지도하시며 우리 나라 황금해력사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단풍》 호고기배들의 고향, 《바다 만풍》의 고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 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에서 1, 500t능력의 절임탕크를 짧은 기간안에 실리있게 개조하여 3, 000t능력의 팽동저장고로 꾸린데 대하여서와 일급동능력을 체계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집행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의 팽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면서 저장고마다에 수천(의 물고기를 꼭 채워넣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물고기가공장을 기계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가공장으로 품되어 꾸려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공장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올린 선구자, 본보기단위답게 앞으로 도 황금해력사창조의 함로를 출기차게 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동해포구에 우리나라 수산사업소의 표준, 본보기단위로 훌륭히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수산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로공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물고기를 하선하는 고기배 《단풍 18-01》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사업소에서 멸치, 송어, 고등어, 전어, 삼치, 도루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고기배 척당 1, 000t이상 잡아 계획을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월8일 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에서 해마다 3, 000t의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제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잡은 물고기들을 다루는 과정에 물고기를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창에서는 물론 하류, 선별, 냉동,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를 다루는 모든 공정들에서 위생학적으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엄격한 질서를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들의 선도를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역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운반과정에 보관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변질될수도 있는것만큼 계절별로, 어종별로 잡은 물고기들과 보관된 물고기들의 품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단위인것만큼 물고기잡이에서의 과학화수준과 운반, 가공처리에서의 자동화, 현대화수준이 다른 수산사업소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아야 하며 물고기들에 대한 품질검사사업도 강화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도루메기어장에서서부터 수산사업소까지 운반거리가 먼 조건에서 수송과정에 물고기들이 변질되지 않게 고기배와 랭동선, 운반선으로 선단을 무어 내보내며 가공장의 면적을 늘여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실내에서 가공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 000t급 랭동 저장고를 돌아보시면서 수산사업소별로 물고기 랭동블록의 무게가 서로 다른데 랭동서랍의 크기를 통일하여 규격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수산사업소이며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틀간 련속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며 물고기산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하시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어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보니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이 제나름대로

다 궁리가 있고 경영활동을 잘해보려는 일욕심이 높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말에 집중어로가 끝난 다음 진행하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열성자회의 및 경험발표회에서 올해 계절별 물고기잡이실적과 기업관리, 경영관리, 300일출어일수보장, 어구준비, 연유보장, 고기배정비정형과 특히 물고기보관관리, 품질검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엄격히 총화하며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면 인민들과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답게 당의 수산정책을 옹호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만아들공장으로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제품본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창설로부터 발전행로의 굵이굵이마다에 뜨겁게 깃들여있는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잘 알수 있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전시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낡고 초라하였던 공장이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공장을 돌아보시고 못내 심려하시었던 이 공장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생활화하여 종업원들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공장의 연혁과 령도사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방침관철투쟁에 적극 떨쳐나 높은 생산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발도안창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공장에서 상점들에 《의견수첩》을 만들어놓고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발생산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년령별, 계절별, 직종별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소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발생산에서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발철, 인조피, 각종 접착제, 도색제, 광택제와 같은 원료, 자재들을 제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장에 불쑥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봉연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산정상상의 동

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갑피직장, 제화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방침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갑피직장에서 학원을 갖 졸업한 나 어린 재봉공이 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된 자동재봉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재봉작업에서 컴퓨터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발창출질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신발생산의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실현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출작업반을 돌아보시면서 신발창을 가볍고 든든하게 만드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신발창설계를 현대적추세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계속 부단히 갱신하기 위하여 가지있는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들을 서로서로 내놓으며 애쓰는 기풍이 좋다고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신발생산에서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색이 고상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미감에 맞으며 가볍고 견고함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은 도안설계를 잘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세계적인 신발공업발전추세와 신발공학의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이 높이 울리고 질 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는 구두를 더 많이, 더 맵시있게 만들어냄으로써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과 생산현장들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승고한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통의 큰 도시건설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이다. 올러온 이해의 날과 달들을 되새겨보면 제일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은 인민을 위해 씩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도도강행군 길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인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이해의 사계절에도 현지도도강행군길에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평양계약공장과 새로 개건된 평양무폐도전차공장을 찾으시고 새형의 무폐도전차시운전을 보아주시었으며 완공된 고압-담철길,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도도하시었다.

사람들이 최악의 고온과 무더위를 가시려고 강과 바다, 깊은 산골의 피서지를 찾아다니던 지난 7월과 8월에만도 그이께서는 무려 20여개 단위를 현지도도하시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폐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며 무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축교만났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생산자들의 성과를 치하하시며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만듯 기분이 뜬다고, 년

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 심중에 차오른 격정을 감지 못해하신 사실도 삼복철천지지도의 나날들이 있는 이야기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이렇듯 열렬한분위에서서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는 그의 발걸음은 사계절 멈춤이 없었다.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원약단 공장,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 신의주건설총계회지도 등 나라의 방방곡곡을 총횡무진하시며 만복의 화원을 가꾸어가신 그이이시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련일실적을 올리셨는데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과 원산구두공장을 현지도도하시었다.

몸소 만신하고 귀중한 고기배에 오르시어 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하시고 물고기잡이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가르쳐주시었으며 수산사업소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그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전국의 육아원, 체육단점짜리라고 생산자들의 성과를 치하하시며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만듯 기분이 뜬다고, 년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원산갈마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 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복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며 기분이 정말 좋다고.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도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행동지침에 딱 들어찬 물고기블록들을 보물산, 금피갈라고 하시었고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어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 라고 하시었었다.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훌륭한 《애복산》 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하시면서 공장에 붙속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공원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전국의 육아원, 체육단점, 초동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할수 있다고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도 인간이시다. 그이이시라! 그러면 시원한 해변가에서 거닐고싶지 않으시고 겨울이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지 않으시라. 하지만 보통의 각오와 의지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초인간적인 정력을 바치시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여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도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그것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총실한 심부름군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헌신이었고 강렬한 분투였다.

이 나라의 사계절은 저절로 찾아오지만 인민을 위한 만복의 신의주공장이 주렁지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 정력이다.

하기에 워번물류의 정력적인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전 해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모든 힘과 정열을 다바쳐지고있는 것이다.

남 윤

고있다. 자체의 원료와 자재, 기술에 의거하여 저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정이 일러마다 벌어지고있다. 백화점, 상점들은 질 좋은 국내산 상품들이 꽉 차있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것으로 인식적이다.

평양과 지방에 있는 거리들을 지나가다보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표정이 매우 활기차 차있는것이 특징이다. 생활에 대한 근심이 많고 애타는 희망이 없다면 이런 밝고 명랑한 거리의 분위기를 생각할수 없다.

북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은 어제와 오늘을 긍지롭게 생각하며 미래를 락관하며 산다. 인민을 위하는 훌륭한 정치가 있고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의 든든한 토대가 있어 더 살기 좋은 락관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는 북의 인민들이다.

령도하는 원수님을 믿고 베풀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며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호모하고 따르는 이런 나라는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고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박 형 진(재중동포)

최근년간에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등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어 신도시수준으로 달라진 평양의 모습이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건물과 평양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였다.》고 하였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해 외부 세력이 자행하는 《대북제재》는 여섯째 중단된적이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개선을 약속한 싱가포르조기수뇌회담이후에도 북의 《선택포기》를 요구하며 제재의 고삐를 죄고있다. 그런 국도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북이 주축거리거나 퇴보하지 않고 자체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놀라운 변화를 펼쳐보이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 비결의 하나를 나는 북의 인민사랑의 정지에서 찾았다.

지난해의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

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았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인생관이 함축되어있다. 본다.

이민원천을 한생의 좌우명인.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고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도 자랑꽃하지 않으시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인민을 위한 머나먼 현지도도의 길을 씩임없이 걸으시는 최고령도자님이다.

그분께서는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이어

말한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도도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대한 공사를 벌리는것은 세상에 이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시었다 한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조국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도처에 현대적인 건물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과 피수농장, 축산, 양어기지를 대대적으로 일떠세우고있다. 어릴 가나 자립경제의 동음소리가 힘차게 울리

고있다. 자체의 원료와 자재, 기술에 의거하여 저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정이 일러마다 벌어지고있다. 백화점, 상점들은 질 좋은 국내산 상품들이 꽉 차있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것으로 인식적이다.

평양과 지방에 있는 거리들을 지나가다보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표정이 매우 활기차 차있는것이 특징이다. 생활에 대한 근심이 많고 애타는 희망이 없다면 이런 밝고 명랑한 거리의 분위기를 생각할수 없다.

북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은 어제와 오늘을 긍지롭게 생각하며 미래를 락관하며 산다. 인민을 위하는 훌륭한 정치가 있고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의 든든한 토대가 있어 더 살기 좋은 락관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는 북의 인민들이다.

령도하는 원수님을 믿고 베풀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며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호모하고 따르는 이런 나라는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고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박 형 진(재중동포)

황금해의 력사는 말한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

홍재운 《바다 만풍가》의 선율과 함께 동해에서 비빔한 바다 향기가 풍겨온다.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고기배들, 야외하복장에 쏟아져내리는 물고기폭포, 랭동저장고에 딱 들어찬 물고기블록들...

보기만 해도 호호하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것같은 이 평경에서 풍성할 희락에 마주앉아 즐겁게 웃을 인민들의 밝은 모습이 어련하다.

그러나 하면 육아원과 체육원, 초등학교원과 중등학교원 원아들의 모습도, 양로원 로인들의 모습도 안겨온다.

하다면 어디서나 풍기는 이 바다향기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도도하시었다.

몸소 고기배에 오르시어 만신하고 귀중한 어로공들을 축하하시고 야외하복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배경으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수산사업소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이틀간 련속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며 물고기산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고 하시

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어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었다.

인민들에게 물고기가 풍족하게 차려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었으면 자신께서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다고 하시었었다.

그러시면서도 중요하게 내세우신것은 물고기들의 품질보장문제였다.

인민들이 신선한 물고기를 먹도록 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물고기들을 다루는 과정에 오염방지시키지 않도록 위생학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한 질서를 세우며 잡은 물고기들과 보관된 물고기들의 품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할때 대하여 세심히 가르치시었다.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작황을 보시면서도 그이께서는 먼저 생각하신것은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육아원 원아 체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공급할때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나가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것을 보고받으시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수천리정도 달려가 보아주시는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그이께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다.

몇해전 11월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신 그이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

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철저히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하시었다.

그때부터 황금해라는 새로운 부름이 이 땅우에 태어나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수산사업소들을 찾다찾으시어 온 나라에 수산열풍이 일어번지게 하시었다.

새로 무슨 고기배에도 풍요로운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이라는 이름도 달아주시고 물고기잡이에서 유혼을 창조한 어로공들을 몸가까지 부르시어 그 한사람한사람에게 높은급의 국가수훈도 직접 수여하시었다으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신 그이의 손길아래 포구마다, 어장마다 《바다 만풍가》의 노래가 높이 울리게 된것이다.

황금해의 력사는 말한다.

하복장마다 물고기폭포가 쏟아져내리고 랭동저장고마다 물고기블록들이 산을 이룬 이 광경, 바다면 산천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바다향기가 흘러드는 이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이채어경》이라고.

인민들은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부르그부른다.

...

이 기쁨이 너덕이나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 해가세

김 장 일

최근 공화국이 감자농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올해 대흥단군에서는 정보당 평균 51.5t, 최고 70t의 감자가 생산되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난 10월 북방의 찬눈을 맞으며 삼지연감자가무생산장을 또다시 찾으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자저장고안에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도록 무드기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 되도록 떠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들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서 이룩된것이다.

공화국에서 감자재배와 가공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주제87(1998)년 10월 량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고원의 넓은 대지에서 새 세기 농업혁명의 본모기를 창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대담하게 개선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감자를 심을수 있는 모든 곳에 감자를 대대적으로 심고 그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감자농사혁명방침은 공화국의 구체적실정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

명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범방직대뿐 아니라 북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감자육종제도와 고려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중

영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범방직대뿐 아니라 북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감자육종제도와 고려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중

영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범방직대뿐 아니라 북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감자육종제도와 고려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중

영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범방직대뿐 아니라 북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감자육종제도와 고려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중

영적인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범방직대뿐 아니라 북부산간지대에서도 농사를 잘 지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정연한 감자육종제도와 고려형순환생산체계가 세워지고 농업생산의 중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료동강기슭에 일떠선 민수교고기상점점을 찾으시었다. 상점내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없이 시공되었고 상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료동강기슭에 일떠선 민수교고기상점점을 찾으시었다. 상점내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없이 시공되었고 상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료동강기슭에 일떠선 민수교고기상점점을 찾으시었다. 상점내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없이 시공되었고 상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료동강기슭에 일떠선 민수교고기상점점을 찾으시었다. 상점내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없이 시공되었고 상

높이 쌓인 감자산을 보며

합격기계가 다그쳐 감자생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자동화된 최상급의 수확기와 마력수가 높은 트랙토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감자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맡아수행함으로써 베투삼천이여 감자로서의 가치가 대폭 높아지고 그 맛과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되었다.

감자가공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감자에는 농마와 비라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장식식품으로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

합격기계가 다그쳐 감자생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자동화된 최상급의 수확기와 마력수가 높은 트랙토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감자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맡아수행함으로써 베투삼천이여 감자로서의 가치가 대폭 높아지고 그 맛과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되었다.

감자가공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감자에는 농마와 비라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장식식품으로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

합격기계가 다그쳐 감자생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자동화된 최상급의 수확기와 마력수가 높은 트랙토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감자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맡아수행함으로써 베투삼천이여 감자로서의 가치가 대폭 높아지고 그 맛과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되었다.

감자가공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감자에는 농마와 비라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장식식품으로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

합격기계가 다그쳐 감자생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자동화된 최상급의 수확기와 마력수가 높은 트랙토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감자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맡아수행함으로써 베투삼천이여 감자로서의 가치가 대폭 높아지고 그 맛과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되었다.

감자가공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감자에는 농마와 비라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장식식품으로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



감자농사 현장 모습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힘찬 발걸음

—겨변의 2018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18년이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북남이 손잡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써온 궁지로운 사변의 한해였다. 1월부터 저무는 이해의 12월까지 조선반도에서는 총격적이고 감동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

나고 전세계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언덕에서 우리 겨레는 환희와 희망, 감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18년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언덕에서 우리 겨레는 환희와 희망, 감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18년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 되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해에 우리 겨레가 받아들인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을 위한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을 그대로 리행해나갈 때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올해에 북과 남사이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다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주시려고 역사적인 평양상봉도 마련해주셨다. 가없이 맑고 푸른 평양의 가을하늘아래에서 남조선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환영의 물결과 축하공연들이 펼쳐지고 역사적인 수뇌회담도 진행되어 온 겨레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로 가슴설레이게 했다. 그것은 위인의 뜨거운 민족애,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떨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삼천리강토에 굽이치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도도한 흐름

2018년의 조선반도에서는 참으로 엄청난 변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것 같았던 이 땅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북남관계가 반목과 대결, 적대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화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가

고있다. 조선반도의 침체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있다.

2018년 한해동안에 이 땅에서는 이미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는 사변이 일어났다.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 따뜻한 화해와 평화의 봄이 오고 겨레의 가슴마다에도 봄이 오고 화해의 꽃

이 피었다. 이에 따라 여러차례의 북남고위급회담들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각 분야의 후속회담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 9월에는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추동해주게 되었다. 북과 남의 예술교류도 벌어져 삼지연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남측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봄이 온

다》는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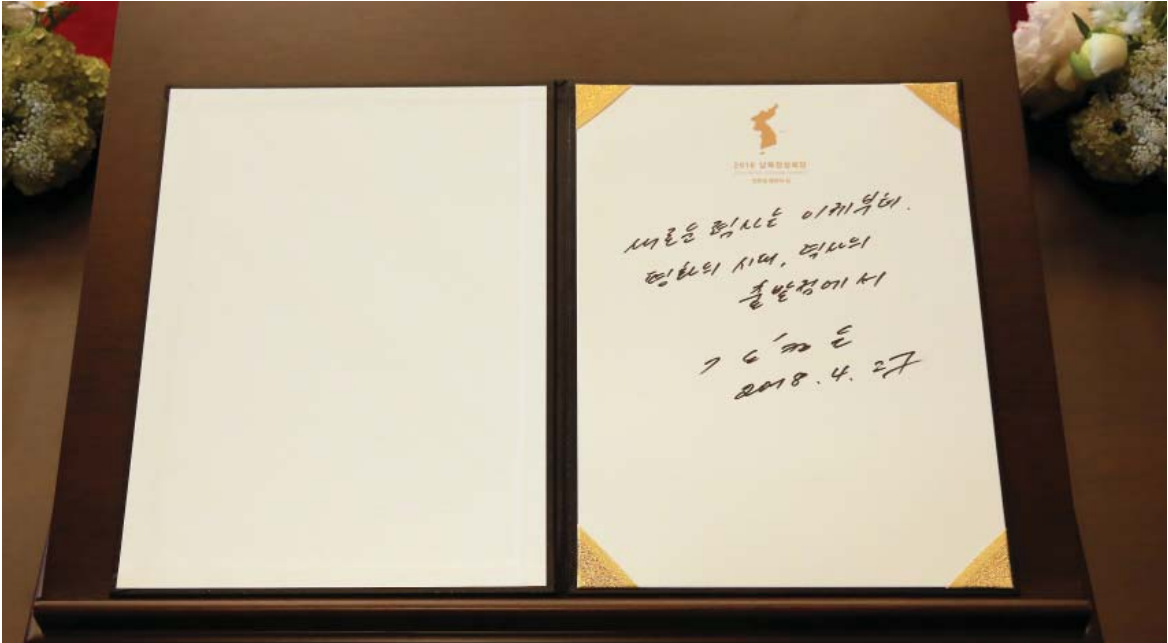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제명의 공언무대를 펼치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께서는 보다 전환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가 북남이 합의체택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지지환영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펼친 탁월한 령도의 손길

올해에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환의 국면은 저절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확고부동한 평화통일의지,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도량, 민족을 위한 무한한 헌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2018년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인의 그 말씀은 북남관계의 오랜 어둠을 가셔주는 밝은 빛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물결을 지

려주시려고 남조선에 삼지연관현악단과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사절단들을 연이어 파견해주셨다. 그리고 올림픽개막식과 폐막식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하심으로써 올림픽무대에서 펼쳐진 민족화해의 물결이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해주셨다.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판문점에 나가시어 두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이 평화변영으로 가는 새 출발의 장엄한 신호총성을 울려주시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4월 27일 오전 9시, 북남수뇌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점리선의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물결을 지

려주시려고 남조선에 삼지연관현악단과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사절단들을 연이어 파견해주셨다. 그리고 올림픽개막식과 폐막식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하심으로써 올림픽무대에서 펼쳐진 민족화해의 물결이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해주셨다.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판문점에 나가시어 두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이 평화변영으로 가는 새 출발의 장엄한 신호총성을 울려주시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4월 27일 오전 9시, 북남수뇌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점리선의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물결을 지

려주시려고 남조선에 삼지연관현악단과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사절단들을 연이어 파견해주셨다. 그리고 올림픽개막식과 폐막식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하심으로써 올림픽무대에서 펼쳐진 민족화해의 물결이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해주셨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 《우리는 하나》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통일농구경기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북남공동행사 참가자들이 구룡연으로 오르고있다.



평양에서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진 올해에 북남사이에는 인간의 화합과 협력, 통일운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 정당, 단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련합회의를 진행하여 2018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은 북과 남사이의 적대과 대결을 끝장내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사변을 이룩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온 겨레를 부르는 뜨거운 애국의 호소였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에 응답하여 년초부터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조성해 적극 나섰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환영문명》을 발표하여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평창올림픽대표단파견의 향등을 천명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북측의 제안이 경색된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김정은위원장은 민족의 대추계이다.》라고 웨치면서 민족적화합과 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평양의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과 남의 예술인들은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를 펼쳐보였다. 출연자들이 특색있는 종족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퍼즐도 하나, 언어와 문화도 하나인 우리 겨레는 결코 갈라져 살수 없

로 되었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조선반도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도래한 이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결의문을 발표하여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북남로동자통일추진대회가 진행되어 북과 남이 하나로 뭉치면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더 높이 떨칠수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판문점선언리행의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 통일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첫사업으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민족사적호를 줄기차게 이어나가기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확고한 의지의 과시로 되었다.

지난 11월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북남민화협단체들의 공동행사와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통일박람회》, 《남북하나통일예술단공연》, 《평화, 통일주체의 영화축전》, 《북노래우기》와 같은 다양한 통일주체의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어 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심심은 친심이며 그 누구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으로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그 어떤 외롭고 역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삼천리에 굽어넘치는 민족의 통일열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이 파견되어나갔을 때 남조선의 각계층은 공화국의 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화국의 대표단에 대한 《환영단》을 조직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통일을 흔들며 《반갑습니다.》, 《민족도 하나 우리도 하나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

한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북남의 태권도인들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광속에 북과 남을 오가며 여러차례의 합동시범출연을 진행하였다. 태권도로 민족연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데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무대에 함께 출연한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의 상징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며 북남관계발전의 분위기를 추동해나가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

4.27선언의 채택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해내외에서 세계적으로도 각계각층의 통일열기를 하나로 모아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을 결의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해방 73돐을 맞으면서 북남수뇌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통일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나갈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평양에서는 북남통일농구경기가 개최되고 서울에서는

지난 10월 평양에서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과감히 실천하기 위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이어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는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전민족적인 대 회합이었다. 대회에는 평화변영의 새시대, 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기려는 드높은 열망을 안고 온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

표들이 참가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첫사업으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민족사적호를 줄기차게 이어나가기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확고한 의지의 과시로 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첫사업으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굳게 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민족사적호를 줄기차게 이어나가기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확고한 의지의 과시로 되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김치의 맛과 향기, 영양학적가치가 높아진다

— 전국김치전시회장을 돌아보고 —

민족로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얼마전 공화국의 려명거리 로리추진장에서 진행된 전국 김치전시회는 날로 발전하는 민족음식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전시회는 성, 중앙기관 봉사부,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평양시사회급양봉사부, 각 도(직할시)급양봉사부, 평양시녀맹부 등으로 나뉘어 김치전시, 시범출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치는 우리 나라의 가장 특색있는 민족음식으로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민족의 김치담그기풍습이 오늘날 계승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김치의 종류에 따라 그 담그기방법과 기술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여러 역사 도서들에도 김치의 종류가 40여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쓰이는 재료도 대단히 많은데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는 김치가공에 누구보다 조예가 깊고 능란하며 임의 김치도 능숙하게 만들어낼수 있는 재능있는 요리사들과 함께 가정의 식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가정주부들을 참가시켜 그들이 김치전시와 시범출연과정에 서로 우수한 경험을 나누며 평시에 터득한 자기들의 김치가공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줄수 있게 진행되었다.

모란지도국, 평양호예에서 전시한 보쌈김치, 백김치와 함경북도, 랑양구역녀맹위원회에서 내놓은 갖김치, 양배추김치가 민족전통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있고 영양가가 높음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범출연에 참가한 옥류관과 청류관, 경흥지도국, 묘향지도국의 요리사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체재있는 솜씨로 시원하고 켈하면서도 독특한 향기와 상쾌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통배추김치와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등을 만들어 내놓았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는 김성녀녀성은 지금까지 터득한 통배추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비법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김장용고추의 색깔을 잘 살리려면 고추에서 색을 내는 성분이 잘 우려나오게 해야 하는데 온도가 40~50℃ 인 연한 소금물에 고추가루를 두고 되직하게 갠 다음 일정한 시간 놓아두었다가 갈아서 쓰면 고추의 색깔이 본래보다 더 빨갛게 된다.

또한 김치맛을 돋구는 주요한 비결의 하나는 간을 잘 맞추는 것이요 하면서 배추초절임은 흔히 7~8%의 소금물에 16~24시간 절이며 김치소의 간은 좀 짭짤하다 할 정도로 되어야 배추포기에 양념맛이 잘 배어

들어 맛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문요리사들과 이야기해보니 김치를 담글 때 짭짤한 한가지를 넣는것보다 여러가지를 섞어 써야 맛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멸치젓은 끓여서 맑은 옷물만 리용해야 김치의 색이 좋아지고 명태와 멸치를 맛있게 담그는 비법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주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것을 자랑으로, 맨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있는 슬기로움인 민족이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식인 김치의 맛과 향기, 영양학적가치를 높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겨울철의 류다름 정서

추운 겨울이지만 평양의 곳곳에서는 구수하게 풍기는 군고구마와 밤곰은 냄새가 길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김이 문문 나는 군고구마를 손에 든 사람들의 모습이 겨울풍지와 어울려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고 있다.

말네 집으로 나들이를 가던 로인내외도 그 향기에 이끌려 매대로 다가가 김을 문문 퍼취하려는 노르리가

매년 한뼉 말으면 절로 마음이 호뭇해져 아이들도 어른들도 따끈한 군밤, 군고구마를 손에 들고 후후 불며 맛보는 모습은 아담담고 유정한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겨울철의 특이한 풍경이 아닐수 없다.

1970년대의 어느 가을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들에게 군밤, 군고구마를 팔아줄데 대해 교시하시면서 저장으로부터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강행군을 하고있던 때에도 평양시 거리들에 군고구마를 팔아 줄 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들에서 군고구마와 밤을 구워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잊혀질뻔하였던 군밤, 군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축에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줄지어 들어앉은 야외매대에서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냄새에 취해 한해의 동풍은 《나는 지금 어린시절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밤곰대를 하던 고향마을에 들어선 심정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향취와 토색이 짙은 산촌의 향기를 대도시에서 말아보리라고는 정말 생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들에서 군고구마와 밤을 구워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잊혀질뻔하였던 군밤, 군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축에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줄지어 들어앉은 야외매대에서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냄새에 취해 한해의 동풍은 《나는 지금 어린시절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밤곰대를 하던 고향마을에 들어선 심정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향취와 토색이 짙은 산촌의 향기를 대도시에서 말아보리라고는 정말 생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들에서 군고구마와 밤을 구워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잊혀질뻔하였던 군밤, 군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축에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줄지어 들어앉은 야외매대에서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냄새에 취해 한해의 동풍은 《나는 지금 어린시절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밤곰대를 하던 고향마을에 들어선 심정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향취와 토색이 짙은 산촌의 향기를 대도시에서 말아보리라고는 정말 생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들에서 군고구마와 밤을 구워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잊혀질뻔하였던 군밤, 군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축에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줄지어 들어앉은 야외매대에서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냄새에 취해 한해의 동풍은 《나는 지금 어린시절 얼굴에 검댕이칠을 해가며 밤곰대를 하던 고향마을에 들어선 심정이다. 이렇게 민족적인 향취와 토색이 짙은 산촌의 향기를 대도시에서 말아보리라고는 정말 생구마나 밤을 구워 파는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앞이나 네거리의 매점들에서 군고구마와 밤을 구워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잊혀질뻔하였던 군밤, 군고구마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축에서 우리 생활에 청신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사기자 함글숙



울릉도를 찾아온 안룡복 (3)

글 홍기문, 그림 김영희

안룡복은 복받쳐오르는 분통을 참지 못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장사하러 다니는 중 퇴원을 만났다. 그 중은 지금 바로 한척의 배를 장만해놓고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할까 보고있는 중이었다. 안룡복은 곧 퇴원에게 울릉도에 한번만 다녀와도 막대한 리익을 얻을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요전번 안룡복과 같이 갔던 40여명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며 퇴원도 일찌기 울릉도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터라 어렵지 않게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안룡복은 퇴원에게 다시 권해서 힘이 세고 몸이 날래기로 린근고을에서 유명한 류일부와 글도 제법 지을줄 알고 한문 글씨도 잘 쓰는 리인성을 다 함께 배에 태웠다. 또 그는 무관들이 보통으로 입고 쓰고 하는 푸른 천릭(당상관이 입는 군복) 한벌과 붉은 것을 준비해가기도 하였다. 바람이 순하지 못하여 전번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사흘째 되는 날 무사히 울릉도에 닿았다. 여러 사람들은 곧 나무도 적고 전복도 따지고 하는것을 안룡복이 이 평계저 평계로 만류하면서 일본

어선이 오기를 기다리었다. 조금 지나서 파연 일본어선이 서너척이나 우르르 몰려들고 거기서 일본어부들이 쏟아져나왔다. 안룡복은 류일부이하 장정 수십명을 앞세우고 마주 내려가면서 일본말로 호통을 쳤다. 《너희놈들이 다시는 우리 울릉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백기주래수가 관백의 명령을 받아서 나에게 약속한 일이 있다. 어째서 너희놈들이 또 들어오는거냐? 이번에는 너희놈들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다. 꼼짝 말고 서거라.》

《우리가 본래 마쯔시마로 간다는것이 길을 잘못들어 이 섬으로 온것입니다. 곧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룡복은 자기 울릉도, 우산도 두 섬의 세금을 감독하는 무관이라고 하면서 백기주래수에게 만나자고 기별하였던 백기주래수는 일부러 많은 하인과 여러 사람이 탈것들을 보내어 그 일행을 영접하였다. 안룡복이 붉은 것을 쓰고 푸른 천릭을 입고 백기주로 갔으며 태수와 대동한 자리에 앉아서 담판을 진행하였다.

《대마도주가 우리 나라와 귀국사이에 있어서 두 나라를 함께 속이는것은 비단 울릉도의 한가지 일만이 아니요. 우리 나라에서 보내는 쌀은 얼마말 한섬인데 일곱말 한섬으로 만들고 배는 서른자 한필인데 스무자 한필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10대 오염

1. 원유류출: 바다로 류출된 원유는 새류와 물고기류, 기타 바다생물들을 멸종시킬수 있으며 생태계는 수십년 지나서야 회복될수 있다.
2.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와 핵무기회수처리과정에 생겨나지만 의학과 공업, 식탄 및 광석채굴, 원유가공과정에서도 산생될수 있다.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물과 공기를 오염시킨다.
3. 도시공기오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많은 나라들이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세계적으로 10명당 9명은 여전히 오염도가 높은 공기속에서 숨쉬고있으며 해마다 공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 약 7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4. 수은중독: 수은은 외부에 노출되면 토양과 물, 공기속에서 점차 쌓이게 된다. 수은중독의 후과는 인식능력저하, 통팔기

로 만들고 중이는 길이가 몹시 기니카 세동강에 내어서 물물 단자에 적힌 수자와만 맞추고있소. 관백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수 있겠소? 두나라에 함께 해로 되는 이런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사연을 글로 적어 관백에게 한번 물어주세요.》

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현재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21억명이 위생적으로 불결한 물을 리용하고있으며 그중 8억 4 400만명이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받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관백에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제 잘못을 깨달은 이상 그럴것까지는 없지 않소? 이제부터는 울릉도문제에 대해서도 전과 같이 행동하지는 못할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사람을 한번만 더 보내주세요.》

안룡복도 더 다른 도리가 없어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데 백기주래수가 정중한 작별인사와 함께 각종의 레물을 많이 선사하였다. 그는 옥기도와 백기주에서 받은 레물을 퇴원이하 여러 사람에게 간청하게 되었다.

대고 양양음이 들어가서 자수하였다. 미리 리인성에게 부탁해서 날마다 일기를 써온 까닭에 다른 증거물들과 함께 그 일기도 마쳐있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양양부사는 강원감사에게 공문을 올리고 강원감사는 다시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서울의 량만통치국에는 친한 신부로서는 감히 관리의 옷을 입고 외국에 가서 관리행세를 한 눈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이때 대마도주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도록 제가 관백에게 제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기별하였다. 그와 동시에 안룡복이 두 나라간의 교통은 반드시 대마도를 거친다고 한 오랜 약속을 파기하고 제멋대로 직접 백기주에 드나들었으니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안룡복을 죽여야 한다고 떠들던 량만통도 이제 와서는 그의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었으나 신분에 당치 않게 관리행세를 한 그 죄가 공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겨우 사형을 감해서 먼 변방으로 귀양살이를 보내라고 판결을 내리었다.



안룡복은 귀양살이의 처소로 정해진 땅을 향해 양양을 떠나갔다. 퇴원, 류일부, 리인성 등 그와 일본에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 떠났다. (끝)

안룡복은 귀양살이의 처소로 정해진 땅을 향해 양양을 떠나갔다. 퇴원, 류일부, 리인성 등 그와 일본에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 떠났다. (끝)

치료효과가 높은 음압상상치료법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각종 창상의 치료에 효과가 높은 음압상상치료법을 널리 적용하고있다. 타박상, 화상 등에 의해 생긴 창상은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며 근육을 비롯한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출혈과 삼출액, 피사조직이 많이 생기면서 잘 아물지 않고 만성적으로 경과한다. 종전의 창상치료법의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음압상상치료법은 배액관을 가지고있는 의료용거품피복체로 창상면을 덮고 그우에 공기만을 한쪽 방향으로 투과시킬수 있는 반투과성의 투명한 점착박막으로 창상부위를 밀폐시킨 다음 배액관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음압)을 조정하여 창상면에서 흘러나오는 삼출액이나 피사조직을 지속적으로 빨아냄으로써 창상이 빨리 아물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자료에 의하면 음압상상치료법은 최근에 급성창상과 난치성의 만성창상을 치료하는데서 가장 선진적인 창상치료기술의 하나로 인정되어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널리 적용되고있다고 한다. 창상치료에 음압상상치료법을 적용하면 피부재료의 교체회수를 줄이고 항생제사용기간과 치료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또한 붓기가 완화되고 투명한 점착박막을 통하여 늘 창상을 관찰하는데 편리하며 치료후 흡집이 종전의 치료법에 서보다 비교적 깨끗하다. 한편 이 치료법에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거품피복체로는 해면과 같이 유연하고 탄력성이 좋으므로 얇은 창상은 물론 깊은 창상에도 적용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오가산주목

주목은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로서 우리나라의 해발높이 2 000m이하의 높고 깊은 산지대에서 자란다. 나무의 높이는 10~20m, 직경 50~80cm이며 나무껍질이 붉은밤색이므로 적목이라고도 한다. 가지는 거의 수평으로 뻗고 있는 잔가지에 수평되게 줄지어 붙어있으며 결면은 진한 풀색이나 뒤면은 누른풀색이다. 그늘, 추위 등에 잘 견디며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고 물을 비교적 많이 요구한다. 성장속도는 매우 굼뜨며 10년동안에 2.5m정도 자라며 최고 1 500년까지 산다. 잎과 줄기는 약재로, 목재는 가구재, 건축재, 세공재, 조각재, 공구재, 연필재로 쓰인다. 또한 생김새가 아름답고 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달려서 보기 좋으므로 정원, 공원에 장식용으로 심는다. 천연기념물 오가산주목은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에 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주목의 하나로서 오가산원시립의 자연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나무이므로 천연기념물 제 103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16m, 밑둘레 3.7m, 가슴높이둘레 3.2m, 나무갓직경 7m이다. 본사기자

유모야

머느리의 책임회피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에 웬 돌이냐?》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밥을 한술 먹어보더니 머느리를 칭찬하였다. 《오늘 밤은 참 맛있구나. 한사발 더 먹어야겠다.》 머느리는 시아버지의 칭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말하였다. 《밤을 제가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두번째 밥한술을 입에 넣고 밥금 씹기 시작하였는데 《떡》하고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에 웬 돌이냐?》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밥을 한술 먹어보더니 머느리를 칭찬하였다. 《오늘 밤은 참 맛있구나. 한사발 더 먹어야겠다.》 머느리는 시아버지의 칭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말하였다. 《밤을 제가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두번째 밥한술을 입에 넣고 밥금 씹기 시작하였는데 《떡》하고 돌이